

+ 임석태 · EBS 스튜디오중계영상팀

## 캠코더의 촬영

필자는 몇 회에 걸쳐 가정에서의 캠코더 촬영과 편집, DVD 제작에 대한 글을 쓰게 되었다.  
이 글이 가정에서의 캠코더 촬영과 편집에서 좋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이번 호에서는 촬영에 대한 부분을 다루어 보겠다.

가정에서의 캠코더 촬영은 일이 아니라 즐거운 취미가 되어야 한다.  
필자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촬영하는 디지털 카메라와 캠코더를 비교하면서 캠코더 촬영에 도움이 될 팁을 드리고자 한다.  
우선, 구도는 캠코더나 디카가 거의 동일한 감각이 적용되므로 따로 설명 드리지는 않겠다.  
캠코더에서 디카보다 더 요구되는 기술인 안정감, 녹화시간의 길이에 대한 지식, 영상구성 등에 대한 설명으로 내용을 전개 하겠다.



★ 본 이미지는 기사의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영상 1]은 캠코더로 녹화한 캡처영상으로 필자 캠코더의 단골 모델인 딸의 모습이다. 캠코더로 녹화해서 이렇게 영상캡처가 되므로, 따로 디카 촬영을 하지 않는다. 요즘엔 가정에서도 HD캠코더로도 촬영, 가정용 PC로 HD편집, HD DVD 제작이 가능하므로 화질에 대해서 만족한다.



영상 1

## 안정감



영상 2



영상 3



영상 4

[영상 2~4]는 한 SHOT 이다. 주인공이 다가오는 동안 촬영자는 발을 움직이지 않은 채 캠코더의 앵글만 조정하며 그림을 만들었다. 초보인 경우 지나친 워킹으로 주인공을 정확하게 보여주지 못하는 실수를 많이 하는데, 처음엔 우선 안정된 워킹으로 ZOOM의 사용을 자제한다. 최종 사이즈인 [영상 4]에서도 5초 정도 홀드 해주어 샷의 끝부분을 안정시킨다. [영상 2~4]의 한 shot의 길이는 25초 정도로 되었다.

디카의 경우에는 다음에 와야 할 그림에 대한 생각은 많이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캠코더에서는 영상 구성이 필요하다. [영상 4]와 같이 BS shot으로 끝난 경우 다음 SHOT으로는 FS나 CU SHOT으로 선택하여 보다 다양한 영상 정보를 주도록 하는 것이 좋다.



영상 5



영상 6



영상 7

[영상 5, 6]은 한 개의 SHOT으로 구체적인 정보를 주었다. 이때에도 구도를 유지하며 팔로우 해준다. [영상 5, 6]은 약 7초 정도의 안정된 화면을 유지 하였다. [영상 7]은 주인공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장소의 배경이다. [영상 7]과 같이 현장의 그림 스케치도 해주면 편집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도 있다. [영상 7]의 녹화 길이는 7초 정도 주었다. 영상 구성에 있어서 사이즈의 크기 변화는 꼭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FULL SHOT이 연달아 나온다면가 하면 비슷한 배경의 경우 그림이 될 수도 있고 영상이 단조로울 수가 있다. 그래서 FULL SHOT 다음엔 CU 그다음엔 WS SHOT 등으로 상황에 따라 넓은 그림과 타이트한 그림을 섞어가며 촬영한다면 자연스럽게 배경과 인물을 조화롭게 보여줄 수 있다.



영상 8



영상 9



영상 10

[영상 8, 9]는 약 1분간 촬영된 한 SHOT의 처음과 끝부분이다. 주인공이 계속 말을 하는 경우에 이처럼 길게 녹화하여 음성을 잘 기록하는 것도 좋다. 1분간 사이즈를 유지하며 카메라 워킹은 최대한 자제하였다. [영상 10]은 앞의 그림이 충분하다고 생각되어 주인공을 포함한 배경위주의 영상을 보여 주었다. [영상 2~10]까지는 하나의 장소이며, 총 5개의 SHOT으로 영상이 구성되어 있다. 녹화 중 카메라의 움직임은 최소화하여 영상에 안정감을 주고자 했으며, SHOT과 SHOT의 그림의 크기에는 변화를 주었다.

## 프레임 OUT을 이용한 녹화 길이의 조절



영상 11



영상 12



영상 13



영상 14

[영상 11~14]는 한 개의 SHOT 이다. 주인공이 계속 움직이는 경우 계속 캠코더로 따라 가다보면 한 SHOT이 너무 길어지는 경우가 있다. 편집시 CUT 할 수는 있지만 영상의 끝부분에 안정감이 없고, 또한 영상의 시작부분이 분명하지 않게 된다. 프레임 OUT을 이용하여 원하는 길이의 영상을 만들고 안정감 있는 영상의 끝부분(영상 14)을 연출하는 기술도 유용하다. 이 영상에서도 줌은 사용하지 않았다. 녹화 길이는 15초 정도이다.



영상 15



영상 16



영상 17

[영상 15~17]은 한 SHOT의 절반 정도이다. 주인공의 움직임을 미리 예상하여 프레임 IN을 시도 하였고, [영상 15]에서 5초 정도 사이즈를 유지한 후 서서히 줌 IN을 하였다. [영상 16]에서 안정된 그림을 3~5초 정도, 카메라 홀드상태를 유지한 후에 17로 줌 IN을 하는 것이 안정된 영상이 된다.



영상 18



영상 19



영상 20

[영상 18~19]로 틸트다운 하였고 shot이 길어져 프레임 out 시켰다.

## 영상 구성



영상 21



영상 22



영상 23



영상 24

[영상 21~28]까지는 흔히 디카로도 보통 촬영하는 그림이다. 캠코더 촬영의 영상 구성이 된 부분은 [영상 23], [영상 25]가 된다. 그리고 [영상 28]의 경우는 배경을 위주로 한 영상이다. [영상 23, 25]와 같은 그림이 캠코더 촬영에 있어서 디카와는 다른 점이 된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영상을 타이트한 그림으로 보여 줄때 화면이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영상 25



영상 26



영상 27



영상 28

[영상 28]의 그림은 디카로는 잘 촬영하지 않는 각도이다. 캠코더에서는 주인공들의 뒷모습을 배경위주로 녹화해도 편집시 유용하게 사용된다. [영상 21, 22] 팬, [영상 23, 24] 틸트업, [영상 25, 26] 틸트업, 그 외에도 추가로 영상을 보여줄 수 있다. 앞에서 보여준 그림은 뼈대가 되는 그림으로 거의 반드시 필요한 영상구성 요소이다. 한 장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몇 명을 정확하게 녹화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룹으로 함께 보여주는 방법으로 처리하게 된다. 배경을 보여주는 넓은 영상의 경우는 너무 길지 않게 10초 이내로 녹화 하게 되지만 인물의 표정이나 대화 등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때까지 여유 있게 녹화하는 것이 좋다.



영상 29



영상 30



영상 31



영상 32



영상 33



영상 34

[영상 29~34]까지 주인공이 친척들과 강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장면이다. 여기에서 추가 할 수 있는 장면은 어떤 그림일까 쉽게 생각할 수 있다. 강아지의 정확한 cu라든가 친척 두 명의 안정된 2shot 등일 것이다. [영상 34]는 배경을 조금 옮겨서 촬영한 모습이다. 디카라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지만 캠코더에서는 앞의 영상들과 다소 동떨어진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캠코더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강아지 얼굴 등의 타이트한 그림이나 배경 등의 넓은 그림으로 [영상 33]과 [영상 34] 사이에 보여 주어서, 자연스러운 연결을 돕게 된다. 가정에서의 캠코더 촬영은 방송용과 다르게 내레이션이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음성이 담기거나 재미있는 상황인 경우에는 충분하다 생각될 때까지 길게 영상을 안정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캠코더의 촬영 기초에 대한 설명을 해보았다.

어떻게 하면 영상을 안정되게 그리고 적절한 길이로 좋은 내용을 구성할까하는 것은 초보자에게도 프로에게도 똑같이 중요하다. 좋은 영상을 위해서는 다양한 상황에서 많이 촬영해 보고 촬영한 것을 본인이 스스로 편집해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